

투데이 칼럼

우리 가족 안전지킴이 '소화기와 감지기'

20여년이 넘는 시간을 소방서에 근무하면서 구조·구급·화재를 알리는 출동벨을 들으며 지냈음에도 아직도 난 출동벨 소리가 울리면 가슴이 쿵쿵쿵 쿵 된다.

한 번의 주된 재해 또는 중대 사고가 있기까지는 29회의 경미한 재해 및 작은 사고들이 있었고, 그 이전엔 300여회의 사고 징후들이 있다는 사고 패러미드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위험순간을 모면했을 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원인을 생각하고 되돌아 보아야 한다. 잠재적 원인을 규명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습관을 형성하고 직장이나 생활현장에서도 늘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난 4월 29일에는 이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근로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5월 1일에는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십 년 가꿔온 산림자원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실되었으며 어린이날에는 제주도 예선 빌라화재로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화재들이 있었다. 무진장소방서 현장대응단에 근무하며 화재조사 업무를 주로 하는 화재



김 응 학 무진장 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위

조사관의 입장에서 크고 작은 화재 발생 소식은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가 아니어도 남 일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달 29일에는 관내에서도 가정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례가 있었다. 무진장소방서 관내 장수를 수분리 주택의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여러 대의 소방차가 출동했으나 거주자가 집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진화를 하여 큰 피해를 막았다. 화재조사를 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거실과 화장실 부분에 소화기 분말 가루가 흩어져 있는 현장은 화재의 다급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 이모씨는 작은 불씨로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소화기의 고마움과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고 말한다.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설치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2017년 2월 5일부터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처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초기 신속한 초기진화와 대피를 가능하게 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가정에서 꼭 필요한 안전지킴이다.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세대·층별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침실, 거실, 주방 등)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5만1천여 건으로 전체 화재 21만4천여 건의 약 20%로 정도지만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878명으로 전체 사망자 1557명의 56%를 차지한다.

해마다 170여 명이 주택화재로 사망하고 있고 다른 화재 장소와 비교하여 사망자가 2배 이상 많다. 아직까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없는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꼭 설치하기를 바란다. 5월은 가정의 달로 감사를 전할 일이 많다. 감사함을 전할 때 자녀들은 부모님께 제자들이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에 안전을 담은 소화기 선물을 추천한다.

참고로 노후된 소화기는 폭발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나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교체하여야 한다(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 관리방법으로는 소화기는 평소 습기가 없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손잡이 부분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부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초기 미량의 연기에도 화재를 감지하여 관계자가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도와주는 설비로 주로 건전지로 작동하며 건전지가 방전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앞으로 화재조사를 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면 더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갖추어 신속한 대피와 초기진압으로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사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사태가 말하는 것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집단 발병이 사람들의 느슨해진 정신태도를 다시 옥죄고 있다. 다시는 코로나 확산이 없기를 바랐는데 불행한 일이다. 몸 상태가 안좋은 젊은이가 이태원에 있는 문제의 클럽에 출입해 많은 병원균을 퍼뜨린 것이다. 당국에 따르면 2차 3차 감염으로 새로운 확진자가 11일 월요일 오후 2시 기준 86명이나 된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클럽에 출입한 젊은이들 중에는 허위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경우가 적지 않아 추적이 어렵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그동안 생활 속 거리두기를 당부했다. 그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랜 기간 숨 죽이면서 조심하면서 거리두기를 실천해왔다. 그 덕분에 코로나가 차츰 진정되었다. 이제 좀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 모양이라고 기대했는데 뜻밖에도 집단 발병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환급 연휴 기간과 어린이날에 다른데도 아니고 꼭 클럽에 갔어야 했을까. 학생들의 등교가 다시 연기되는 등 일상화가 무기한 연기되게 생겼는데 이 막대한 피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정부는 일부 완화조치를 말했을 때 일상이 회복된 것으로 오해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만약의 경우 코로나가 다시 발병하면 다시 강화된 조치를 취할 거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앞으로 2주일을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정부의 말에서 젊은이들은 느끼는 바가 있어왔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맘만 나면 즐기면 된다는 식으로 클럽에서 춤추고 놀았던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야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더욱 개탄스러운 것이 있다. 클럽 영업이 서울시 당국에 의해 중지되자 주점이나 컴퓨터 PC 방으로 물러가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여기 거듭 말하거니와 정부의 말대로 해야 한다. 아직은 예전과 같은 일상이 회복된 것은 아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발적으로 시민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반면교사의 사례로 보아야 한다. 우리 전북 도민의 경우 그동안 모범적으로 잘해왔다. 그래도 조심하는 정신태도를 아주 놓아버려서는 안된다. 코로나 완전 퇴치의 마침표를 확실하게 찍을 때까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지는 당부이다.

발전 현안 계속 추진해야 한다

지역 발전은 도민 모두의 염원이다. 전북도는 뜻을 이루지 못한 발전 현안을 주목해야겠다.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들을 챙겨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제 코로나 사태도 진정 국면이다. 전북도는 코로나 확산 방지와 관련해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다. 것처럼 지역 발전 분야에서도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최근 들어서 전북도가 도민에게 연달아 밝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다.

본보는 지난날 여러 번 말한 게 있다. 군산 현대조선소 재가동이 속히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군산의 영세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나날이라서 말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요지부동이라서 조선소가 가동이 어렵다면 미련을 속히 접어야겠다. 이제 전기자동차는 수소자동차는 생산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내명년까지 미루지 말고 작업을 앞당기자는 것이다. 그게 군산형 일자리로 정해졌다면 지체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전북 발전은 도민 모두의 소망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 다들 지역 발전을 위한 정신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게 없다면 지역 발전은 원천 차단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지역 발전은 전북도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다. 지역 경제 살리기를 말할 때마다 요구하는 것이 있다. 우리 전북의 현안이 정부 부처가 눈길을 돌리도록 해야겠다. 전북의 현안이 다른 지자체의 그것에 밀려 후순위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발전 현안에 추진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지역은 일자리가 늘 부족하다. 그래서 실업자들이 다른 광역 시도보다 많다.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악착같이 덩벼들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전북도는 발전 현안의 추진을 위해 앞에서 달리는 모습을 현결차게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5월 4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빙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한시적인 지원제도로써 취약계층의 경우 5월 4일부터 기존 등 록된 계좌로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5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5월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 사람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지자체 등에서 안내문자는 발송하나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화로 절차 진행을 위한 웹 설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지급대상이 아니라 하고 하면서 대출을 안내하는 경우는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죄의 일종으로, 사기범죄는 피해 회복 비율이 0.5%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신원일 남원경찰서 수사지원팀 경감

방심하면 당하는 '침입절도' 예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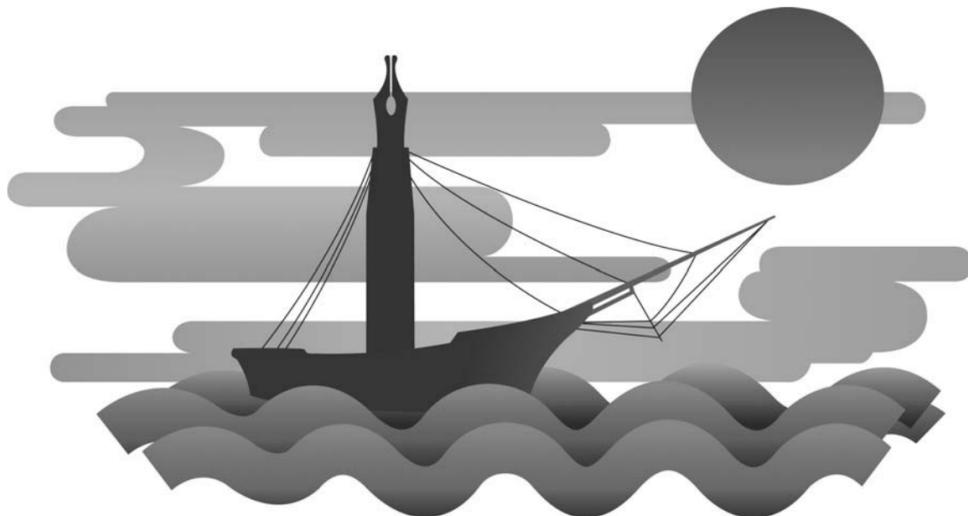
5월 코로나가 주춤하고 있는 지금 봄철 못 갔던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장기간 빈집이 많아지게 되어 침입절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름 휴가철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출입문, 창문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1층에 거주하거나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방범창을 필히 점검해야 하며, 고층아파트인 경우에도 가스배관 등을 타고 침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창문의 잠금장치 점검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침입 절도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휴가 기간 중 SNS업로드를 자제해야 한다. SNS업로드로 인하여 개인정보와 여행일정을 공개하게 되면, 자신의 주거지가 현재 빈집이라는 것이 노출되게 되어 침입절도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남원경찰서와 우리 도통지구대에서는 관내 침입절도 0건을 달성하기 위해 예방 및 순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모두가 위 예방을 위한 방법을 실천한다면 침입절도를 완벽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신원호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경장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